

[뉴노멀, 초연결, 플랫폼시대의 평생교육론](강은숙 외)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정요표

쪽	줄	오	정
121	1) 평생교육법의 제정 13행	2016년 5월 29일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함하는 등 26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6년 5월 29일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함하는 등 29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21	2) 평생교육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1행	평생교육법은 8장 46조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성 체계와 ~	평생교육법은 9장 46조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성 체계와 ~
122	표 5-1 기본체계 행	기본 체계 8장 46조, 부칙	기본 체계 9장 46조, 부칙
122	표 5-1 주요 내용 및 범위 행	주요 내용 및 범위 총칙(1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3장) 평생교육사(4장) 평생교육기관(5장) 문자국가교육(6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7장) 보칙: 행정처분, 권한의위임 등(8장)	주요 내용 및 범위 총칙(1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3장) 평생교육사(4장) 평생교육기관(5장) <b>문해교육(6장)</b> <b>성인 진로교육(7장)</b>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8장) 보칙: 행정처분, 권한의위임 등(9장)
122	(1) 평생교육의 개념 1-2행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 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 ~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b>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b> ,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 ~
124	(6) 문자해득교육 이후 추가	(6) 문자해득교육 이후 내용 추가	(7) 성인 진로교육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에 따른 국가·지역 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평생교육법개정 2023. 6. 13).
125	1) 중앙의 평생교육행정 2행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고등직업교육정책과가 있다(2023).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고등직업교육정책과, <b>청년 장학지원과</b> 가 있다(2024).
126	표 5-2 밑 본문 4행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b>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b> (평생교육법 개정, 2023. 4. 18).
126	3) 평생교육기관 5행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으로 나뉜다. 2019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으로 나뉜다. <b>2022</b>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127	표 5-3 전체	변경	

표 5-3 2022 평생교육기관 현황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계)	각종 학교 (초·중·고)	고등 공민 기술 학교	방송통신 학교	학교 형태 인성 평생 교육 기관	대 학								특수 대학원	
					산업 대학	기술 대학	각종 학교	방송통신	사이버 대학	원격 대학	사내 대학	기능 대학		전공 대학
1,032	72	10	66	42	2	1	2	1	19	2	8	9	3	795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계)	초·중등 학교 부설	대학 (원) 부설	원격 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 단체부설	언론 기관 부설	지식인력 개발형태	시도 평생 교육 진흥원	평생 학습관					
4,869	9	419	1,204	389	423	1,343	564	17	501					

출처: e-나라지표(2024).

쪽	줄	오	정
127	1) 평생교육사 7-8행	2020년 현재 143,808명이며, 이 중 1급은 894명, 2급은 135,270명, 3급은 7,644명이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3).	2022년 현재 157,235명이며, 이 중 1급은 985명, 2급은 148,432명, 3급은 7,818명이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3).
128	표 5-4 캡션	표 5-4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의 2)	표 5-4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의 3)
129	표 5-4 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4).
129	표 5-5 필수과목/과목명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160시간)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이상)
129	표 5-5 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4).
130	(4)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경비 지원 7행	20조의2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	20조의2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제20조3에 따른 노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
130	표 5-6 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4).
135-136	4) 학점은행제 운영 본문 전체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평생교육사2·3급 문화예술교육사,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건강가정사2급, 정사서, 이미용사, 한국어교원2급, 청소년지도사2·3급이 있다. 학점은행을 통한 학위취득자는 2000년 1,020명이었으나 2014년 80,767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 추세에 있어 2017년 72,66명, 2020년 59,065명이다. 1998년 학점은행제 도입 이후 총 840,637명이 학위를 취득하였다(학점은행제, 2023).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평생교육사2·3급 문화예술교육사2급,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건강가정사, 2급정사서, 이미용사, 한국어교원2급, 청소년지도사2·3급이 있다. 학점은행을 통한 학위취득자는 2000년 1,020명이었으나 2014년 80,767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 추세에 있어 2017년 72,66명, 2020년 59,065명이나 다시 증가 추세이다. 1998년 학점은행제 도입 이후 총 1,054,889명이 학위를 취득하였다(학점은행제, 2024).
136	표 5-7 전체	변경	

표 5-7 학점은행을 통한 학위취득자 현황

(단위: 명)

	2020년			1998~2023년 누계
	전문학사	학사	계	
계	31,165	44,768	75,933	1,054,889
교육부장관(2023)	30,836	40,542	71,378	980,304
대학의 장(2022)	329	4,226	4,555	74,585

출처: 학점은행제(2024).

쪽	줄	오	정
136	표 5-7 밑 4행	2014년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가 감소 추세에 있다.	2014년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가 감소 추세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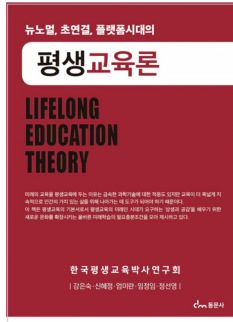
※ 이 정오표와 14장(제4차 산업혁명과 뉴노멀시대의 평생교육)의 보완 내용은 동문사 홈페이지 (<http://www.dongmunsa.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문사>자료실

뉴노멀, 초연결, 플랫폼시대의  
평생교육론  
(강은숙 외)

3부 14장 내용의 일부  
4쇄 수정 예정 본문



PART 03 미래의 평생교육

Chapter 13 온라인 평생교육	327
제1절 온라인 평생교육의 발전과 확산	329
제2절 교수자의 역할 및 평생학습 특성	339
제3절 온라인 평생교육의 문제 및 시사점	345
Chapter 14 제4차 산업혁명과 뉴노멀시대의 평생교육	351
제1절 제4차 산업혁명	353
제2절 뉴노멀시대의 평생교육	366
Chapter 15 평생교육 과제와 전망	377
제1절 평생교육의 과제	379

356~357쪽 (그림 14-2 하단)

현재

의 방법에 가입되어 빠르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둘째,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인간의 두뇌 작용을 빅데이터를 학습 도구로 활용, 딥러닝을 학습방법으로 하여 인간의 사고능력처럼 사고하고 이해하여 사람의 개념 없이 의사결정을 하여 실행하기도 한다. 사람의 창작 영역인 미술의 그림그리기, 음악의 작곡, 글쓰기 등에서도 모방해서 창조하는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앞으로 세상에서 단순한 인간의 정신노동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림 14-2 AI의 인공 신경망을 통한 인공지능의 딥러닝 원리  
출처: <https://www.enzflops.com/blog/5-deep-learning-needs-that-will-rule-2019/>

셋째, 정보통신기술(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은 정보화 사회의 핵심기술로서 초연결성 사회라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통신기술의 발달은 데이터로부터 가치 추출과 결과 분석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탄생시키고 지능화하였다.

넷째,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이라 일컫는 5G(5th Generation) 이동통신을 들 수 있다. 5G 이동통신을 따로 구분하여 기술하는 이유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도 모두 5G 네트워크가 관을 갈아주어야 실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5G는 4G LTE-Advanced 에 비해 데이터의 크기는 20배 20Gbps, 최대 100Gbps, 전송속도는 1/10(0.01)의 초고속 초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이동통신기술이다. 5G는 자동차 내의 모든 기기에서 자동차와 자동

자를 연결하고 교통통제 기지국과 자동차를 연결하여 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수이다. 통신 기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자율주행의 안전한 주행 유지는 5G가 구현되는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이동통신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비롯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등의 발전에 바탕이 될 수 있는 주요 기술이다.

다섯째,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워지기도 하고 황금 열쇠라고도 하는 빅데이터 기술이다. 초연결 시대에서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은 다양한 산업의 생태계가 새로이 열리는 기회가 되고, 기업과 국가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며 도구가 된다. 데이터센터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는 거대 정보를 담고 통계를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저장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커다란 저장장치인 클라우드의 개발은 필요로 하는 맞춤형정보를 제공하고 학습도구로도 크게 이용되고 있다.

2.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

1) 인류의 변화

지금 인류의 문명은 현실에서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혁명이란 표현은 새로운 제거나 시스템이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초연결과 초지능이 바탕이 된 기술의 융합은 인간의 상상의 세계에나 존재했던 아니 상상화 기초차 어려웠던 기술을 쏟아내며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소셜 미디어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의 새로운 세상이 일상과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이자 동시에 미래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다른 변으로 현실의 삶과 가상의 세계가 결합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당연한 지구적·사회적 주요 문제인 지구 환경의 변화가 낳은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신기후체계가 필요하고, OECD국가들의 고령화와 저출산이 낳은 인구 절벽문제, 세계 소비시장의 주류를 이루는 글로벌 도시의 확대 문제 등 문제를 가득 내재한 상태에서 융합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기존 시스템의 파괴(disruption)를 불러오고 나아가 캐리비안의 천천으로 이어지고 있

4쇄  
예정

셋째, 정보통신기술(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은 정보화 사회의 핵심기술로서 초연결성 사회라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통신기술의 발달은 데이터로부터 가치 추출과 결과 분석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탄생시켰고 지능화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은 초고속 인터넷, 이동통신, 광통신, 홈 네트워크 등 통신 기술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이동통신을 따로 구분하여 기술하는 이유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으로 이제는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이라 일컫던 5G(5th Generation) 이동통신을 넘어 이보다 최대 50배 빠른 6G(6th Generation) 시대에 접어들었다. 6G는 2GB 용량 영화 한 편을 0.016초면 내려받을 수 있고, 전송 지연 시간도 5G 대비 10분의 1 수준이다. 이동통신의 발달은 AI,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의 활용을 실현시켜 줄 뿐만 아니라 통신 기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미래의 교통인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은 수준 높은 이동통신기술의 발전에서만 구현 가능하다. 또한 인공지능(AI), 클라우드컴퓨팅 등의 발전에 바탕이 될 수 있는 주요 기술이다.

다섯째,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기도 하고 황금 열쇠라고도 하는 빅데이터 기술이다. 초연결 시대에서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은 다양한 산업의 생태계가 새로이 열리는 기회가 되고, 기업과 국가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며 도구가 된다. 데이터센터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는 거대 정보를 담고 통계를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저장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커다란 저장장치인 클라우드의 개발은 필요로 하는 맞춤형정보를 제공하고 학습도구로도 크게 이용되고 있다.

현재

다 급격한 변화에는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협할 정도의 여러 문제점도 일대하고 있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는 다양한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인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책무도 가지고 있다.

인류는 이제 오랫동안 지켜오던 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 일상을 가장 변화시킨 기술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일상에서 모바일 금융혁명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아도 디지털 행성의 확산으로 거의 모든 금융업무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야마온 등에 의한 모바일 쇼핑의 확산에 따라 백화점의 30%가 사라지는 유통혁명도 일어났다. 유튜브 등 미디어의 혁명은 1인 미디어 시대를 만드는 등 우리의 일상은 크게 변화하였다.

이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동기는 전 세계 인구의 35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사용이탈 수 있다. 특히 인류는 스마트폰을 쓰면서 더 쉽게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소비행동이나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이 아주 달라지며 심리의 변화도 가져왔다. 따라서 개인화되고 스스로 개인이 좋아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활용한다. 이 전혀 다른 문명은 “폰을 든 인류,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라는 새로운 말을 탄생시켰고 포노사피엔스가 지구를 바꾸고 있다(출처: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2015, 재인용, 최재붕, 2019). 여기의 주역들은 어릴 때부터 폰을 사용하고 SNS가 생활의 일부이기도한 신인류인 텔레니컬 세대로서 태어나서부터 게임 등을 접하며 가상공간에 익숙하고 이들의 생각은 물론 소비심리와 소비 행동의 사회 생태계에 자의를 가진다(최재붕, 2019).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폰을 손에 쥔 36억 명 이상의 세계인이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이기도 하다. 포노사피엔스들은 스마트폰을 지니고 새로운 디지털 문명을 창조하고 새로운 소비문명을 가져왔다.

또한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의 결정체인 인터넷은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었다. 세계는 인터넷 보급으로 인하여 계백근부가 가능하고, 가지 않고서도 쇼핑이 가능하고, 집에서 보전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인터넷 속도도 세계 평균 속도보다 월등한 세계 1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인터넷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생활은 많이 윤택해 지고 편리해졌지만 인터넷의 역기능이나 반론도 많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인터넷 중독이나 불법 공유로 인해 콘텐츠 시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악플에 시달리다 생명을 버리는 극심한 사생

할 침해도 생긴다. 무엇보다도 세계 인구의 44.9%(2020년 스타티스타 자료)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약 60%만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2)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

우리의 일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제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폰의 일상화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 되고, 드론은 국방에서 상용 배달까지 활용되고 있다. 또 TV에는 AI행커가 뉴스를 진행하고, 3D 프린팅 기술은 일상의 도구나 주택 건설은 물론 인간의 인공장기까지 생산한다. 기술의 혁명은 산업에서도 놀라운 변화로 나타났다. 로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가치를 일으키고, 광고, 운송, 통신 등의 비용이 비감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물류유통이 효과적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과학기술의 내면에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계를 예측하기조차 힘들다. 세계경제포럼의 연구와 내부 글로벌 어젠다다운글로벌 Agenda Council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한 과학적 신기술들을 꼽아보면 물리화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 세 가지이다. 이들 신기술 신기술에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존재한다. 이 혁신에는 광범위한 디지털화와 정보통신기술의 힘이 활용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클라우스 슈밥, 2016).

위 세 분야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발전과 결과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진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분야별로 더 살펴보고 우리의 생활과 연결시켜 볼 수 의미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신성장 산업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가상현실,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을 꼽고 있다.

(1) 인공지능은 우리의 편의와 이목을 집중시켰던 ‘알파고’를 생각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입력받은 정보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학습과 기계학습의 한 갈래이지만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받아 스스로 분석하여 답을 내는 딥러닝이 있다. 의료데이터를 이용한 암 진단, 콜센터, 금융거래, 법률·행정 등에 사용된다.

4쇄 예정

인류는 이제 오랫동안 지켜오던 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 일상을 가장 변화시킨 기술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꼽아왔지만, 최근 AI는 4차 산업 기술의 영역인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로봇, 가상현실 등과 결합해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보이고 있다.

2024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WEF)에도 AI는 주된 주제였다. 특히 생성형 AI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AI시대 윤리’를 주제로 한 강연,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인공지능(AI) 덕분에 인류는 인류가 아닌 존재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게 되었고, 생성형 AI인 ChatGPT는 일상에 급속히 들어와 활용되기 시작했지만 인공지능 환각(Artificial Halucination), 낮은 수준, 자료출처 확인 불가능 등 상용화하기 위해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은 단순히 검증과 검열한다고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진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발전된 생성형AI인 구글의 람다(LaMDA)의 출시를 기대하고 있다. 오픈AI가 인공지능 활용 생성 이미지에 별도의 표식을 달기로 하였지만, 최근 전 세계의 걱정거리로 등장한 딥페이크(deepfake·AI가 만든 가짜 콘텐츠) 폐해는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다.

최근 삼성의 인공지능 폰은 진일보하여 전문적 사진 편집은 물론 13가지 언어를 동시통역하는 ‘내장형(on-device)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고 전자업체들은 노트북, 가전 등 모든 전자기기로 확산시키고 있다. 세계의 인공지능(AI) 리더들은 인공지능(AI)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세계는 모바일 금융혁명이나 모바일 쇼핑이라는 유통혁명 등은 이미 일상이 되고, 더 쉽게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물론 개인화되고 스스로 개인이 좋아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쉽게 활용하게 되었지만 심리적인 변화도 가져왔다.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문명은 “폰을 든 인류,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라는 새로운 말을 탄생시켰고 포노사피엔스가 지구를 바꾸고 있다(출처: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2015, 재인용, 최재붕, 2019).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으면 패닉상태가 되어 공포증을 느끼는 ‘노모포비아(nomophobia)’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태로 만연되어 정신 건강을 헤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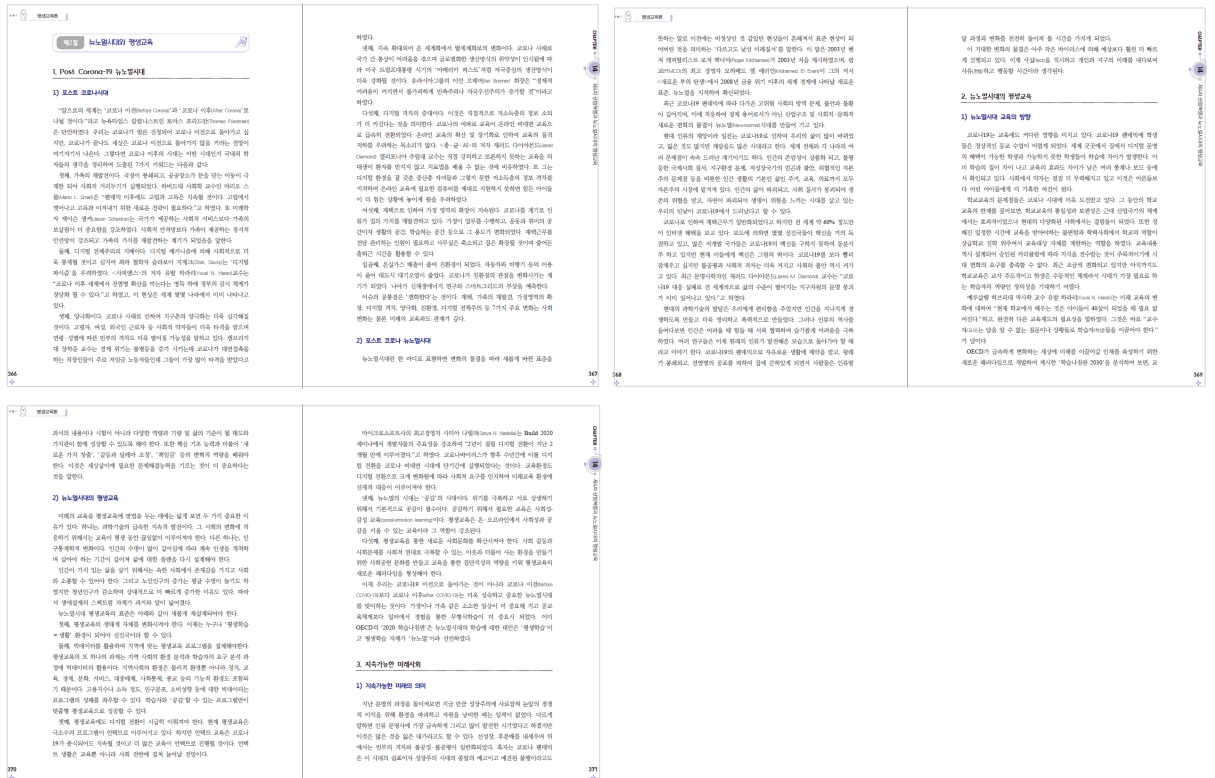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은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가까이 묶어주어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집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등 생활은 더 윤택하고 편리해졌지만 사생활 침해는 비롯한 여러 가지 역기능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67~371쪽 : 제2절 뉴노멀시대와 평생교육 /

1. Post Corona-19 뉴노멀시대 - 2) 포스트 코로나의 깨달음  
2. 새로운시대의 평생교육

현재



2) 포스트 코로나의 깨달음

뉴노멀시대란 한 마디로 표현하면 변화의 물결을 따라 새롭게 바뀐 표준을 뜻하는 말로 이전에는 비정상인 것 같았던 현상들이 흔해져서 표준 현상이 되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다르고도 낮은 미래질서’를 말한다. 이 말은 2003년 벤처 캐피탈리스트 로저 매너미(Roger McNamee)가 2003년 처음 제시하였으며, 펠콤(PIMCO)의 최고경영자 모하메드 엘 에리안 (Mohamed El Erian)이 그의 저서 <새로운 부의 탄생>에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에 나타날 새로운 표준, 뉴노멀을 지적하며 확산되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다다른 고위험 사회의 방역 문제, 불안과 불황이 길어지며, 이에 적응하여 경제 용어로서가 아닌 산업구조 및 사회적·문화적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뉴노멀(New-normal)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현대 인류의 재앙이라 일컫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고, 잃은 것도 많지만 깨달음도 많은 시대라고 한다. 세계 전체와 각 나라의 여러 문제점이 속속 드러난 계기이기도 하다. 인간의 존엄성이 상흔화되고, 불평등한 국제사회 질서, 지구환경 문제, 저성장국가의 빈곤과 불안, 위협적인 자본주의 문제점 등을 비롯한 인간 생활의 기본인 삶인 주거, 교육, 의료까지 모두 자본주의 시장에 맡겨져 있다. 인간의 삶이 파괴되고, 사회 질서가 붕괴되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자연이 파괴되어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민낯이 코로나19에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문명사학자인 재러드 다이아몬드(Jared M. Diamond) 교수는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전 세계적으로 삶의 수준이 떨어지는 지구 자원의 문명 붕괴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고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자유로운 생활에 제약을 받고, 왕래가 봉쇄되고, 주변 가족을 상실하고, 전염병의 공포를 피하여 집에 갇혀있던 경험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아픔을 뒤로하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문명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인간을 지나치게 경쟁하도록 만들고 더욱 영리하고 폭력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인간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서로 협력하며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여러 연구들은 이제 원래의 인류가 발전해온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며 인류발달 과정과 변화를 천천히 돌아켜 볼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사실(fact)을 직시

4쇄 예정

하고 개인과 지구의 미래를 내다보며 사유(思惟)하고 행동할 시간이라 생각된다.

## 2. 새로운시대의 평생교육

### 1) 새로운시대 교육의 방향

코로나19는 교육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팬데믹에 학생들은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어렵게 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집에서 디지털 문명의 혜택이 가능한 학생과 가능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습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미 학습의 질이 확연히 차이 나고 교육의 효과도 차이가 남은 여러 통계나 보도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사회에서 약자는 점점 더 무력해지고 있고 이것은 어른들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더 가혹한 여건이 된다.

학교교육의 문제점들은 코로나 시대에 더욱 도전받고 있다. 그동안의 학교교육의 한계를 짚어보면, 학교교육의 통일성과 보편성은 근대 산업국가의 체제에서는 효과적이었으나 현대의 다양화된 사회에서는 걸림돌이 되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은 물론, 최근 조금씩 변화되고 있지만 교사 주도적이고 학생은 수동적인 학교교육 체제에서 탈피하여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학습자의 역량인 ‘창의성’ 개발을 위한 학습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예루살렘 히브리대 역사학 교수 유발 하라리(Yuval N. Harari)는 미래 교육의 변화에 대하여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아이들이 40살이 되었을 때 필요 없어진다.”하고, 완전히 다른 교육제도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그것은 바로 “교수자(교사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나 상황들로 학습자(학생)들을 이끌어야 한다.”가 답이다.

OECD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상에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발하여 제시한 ‘학습 나침반 2030’을 분석하여 보면, 교과서의 내용이나 시험이 아니라 다양한 역량과 기량 및 삶의 기준이 될 태도와 가치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핵심 기초 능력과 더불어 ‘새로운 가치 창출’, ‘갈등과 딜레마 조정’, ‘책임감’ 등의 변혁적 역량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세상살이에 필요한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 2) 초고령 사회의 평생교육

미래의 교육을 평생교육에 방법을 두는 데에는 넓게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하나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지속적 발전이다. 그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평생 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하나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이다. 인간의 수명이 많이 길어짐에 따라 계속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야 하는 기간이 길어져 삶에 대한 플랜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일천만 노인시대’이다. 2023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9.0%를 기록하였고, 이대로라면 2024년 말- 2025년 초에 노인인구가 20%에 달하여 초고령사회가 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출산율 감소와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연령이 되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고령화의 진행 결과를 예측해 보면, 첫째, 경제적으로 사회 보장 비용이 늘어난다. 둘째,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의 감소와 인재 파동으로 기업의 생산성 감소 및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진다. 셋째, 가족 구조의 해체에 따른 사회적으로 단절된 독거노인이 증가한다. 넷째, 노인 대상 범죄나 복지 부족에 기인한 노인 범죄자도 증가한다. 다섯째, 노인의 생계형 창업과 소포장 식품이나 개인용 물품 등 노인을 위한 산업이 성장한다. 여섯째, 병원과 인접한 주택 선호에 따라 인구의 도심 회귀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노인의 사회적 격리를 예방한다. 둘째,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하여 빈곤을 탈피하여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노동 유연성을 높여 노인의 경력활용과 노인 노동시장을 개발 확대한다. 넷째, 새로운 노인평생교육을 개발하여 전문적으로 직업개발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인력 활용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물론 정부와 사회는 출산 및 육아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은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 등 종합적인 대응이 기본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평생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들여다보자. 정부는 2023년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성인진로교육과 노인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신설된 평생교육법 제20조 3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노인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지장·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3.4.18. 개정 2024.4.19. 시행예정).

또한 제2조 제1호 중 ‘직업능력향상교육’을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변경하여 성인진로교육을 실시(2023.6.18. 개정 2023.12.14. 시행예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고 진로를 인식·탐색·준비·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진로심리검사·진로상담·진로정보·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명문화하였다.

고령사회의 평생교육 표준은 아래와 같이 새롭게 재설계되어야 한다.

첫째, 평생교육의 생태계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제는 노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평생학습=생활’ 환경이 되어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빅데이터의 활용은 필수이다. 지역사회의 환경 분석은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정치, 교육, 경제, 문화, 서비스, 대중매체, 사회통제, 종교 등의 기능적 환경도 포함되어 있고, 고용지수나 소득 정도, 인구분포, 소비성향 등에 대한 빅데이터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

셋째, 현재는 ‘공감’의 시대로 사회성·감성 교육이 중요하며 평생교육은 온·오프라인에서 사회성과 공감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다.

넷째, 성인평생교육을 통한 새로운 사회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사회 갈등과 사회문제를 사회적 연대로 극복할 수 있는, 사회공헌 문화와 교육을 통한 집단지성의 역량을 키워 평생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야 한다.

OECD 또한 ‘2020 학습나침판’에서 새로운 시대의 학습에 대한 대안은 ‘평생학습’이라고 선언하였다.

**373쪽** (본문 10행부터 끝까지)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그의 저서 <글로벌 위험사회>에서 “21세기 새롭게 등장한 위험은 더 이상 특정지역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 위험은 초국가적이며 비계급적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그는 위험을 해결을 위해서는 “초국적 협력과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일찍이 또 다른 그의 저서 <위험사회>에서는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이 실제로 가속스러운 ‘위험사회’를 낳다고 주장 하였다. 그는 현대 문명사회의 핵심 위험과 그 원인을 직시하였고 어떻게 위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답을 하였다.**

울리히 벡이 일련되게 주장해 온 것은 근대성의 한계를 극복과 새로운 근대 즉 그가 말하는 “제2의 근대”로 돌파구를 찾아 나아가는 것이다. 또한 그는 최근 경제적 합리성을 주장하는 시장 논리에 의해 국적과 정치가 무력화되어가고 있음을 경계해야하고 지구촌의 신자유주의 경향을 지적하였다.

인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코로나 팬데믹이 강타한 충격은 우리에게 여백을 가져다주어 문제를 직시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제는 ‘어떻게는 안 된다’는 자각을 주며 인류 진화의 모습대로 서로 도와야만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일깨움도 주었다.

말투가 돌아보고 자각해보니 보인다. 그 동안 우리가 얼마나 초고속 성장의 사회에 살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돌아본다. 주변이 온통 경쟁의 대상으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여 편리해지고 부유해졌지만 우리의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못한 것은 주변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텝이 티미에 속 예쁜 꽃이 피었다 하더라도 그 꽃은 아름답지도 오래 갈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원재료 계급을 재생산하고 있다. UC버클리의 경제학 교수 로버트 라이시(Robert B. Reich)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계급의 분열과 그 안의 불평등을 조명한다.”는 그의 칼럼에서, 코로나19에 직면하여 사람들을 4개의 새로운 계급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원격근무가 가능한 노동자(The Remotes), 둘째, 필수적 일을 해내는 노동자(The Essentials), 셋째,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The Unpaid), 넷째, 잊혀진 노동자(The Forgotten)로 나누었다.

그의 글에 따르면 여건이 되어 재택근무가 가능한 그들은 미국의 전체 노동자의 35%, 반드시 나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는 의사, 간호사, 소방관, 약사, 경찰 등 30%에 달하는 일상의 여러 직업군들, 세 번째 그룹인 코로나19의 혼란 속에 일은 하지만 수입이 없거나 없었던 사람들과 3개월 생활비를 충당할 비상금도 없는 실직자, 어떻게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수입이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다. 네 번째 그룹의 교도소에 있거나 오갈 곳 없고 끼니를 염려하는 노숙자 등 잊혀진 노동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인 질병, 빈곤, 교육, 난민 등의 문제와 지구 환경 문제인 에너지, 기후변화, 환경오염, 불 등의 문제, 그리고 경제 사회 문제인 주지, 기술, 생산 소비 등등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지구 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때이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계급주의, 자본주의, 인종차별 등을 발전시킨 반생태적 본성의 역사를 뒤로하고, 인간이 지닌 또 다른 한 인간 생태환경을 보존하려는 생태학의 본성을 찾아가야 한다.

오늘날 전 세계에 파급되고 있는 철학적 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는 신중생애




그림 14-4 인류의 존재론적 주요 문제들

현재

4쇄 예정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계급을 재생산하였다. UC버클리의 경제학 교수 로버트 라이시(Robert B. Reich)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계급의 분열과 그 안의 불평등을 조명한다.”는 그의 칼럼에서, 코로나19에 직면하여 형성된 4개의 새로운 계급으로 사람들을 구분하였다. 첫째, 원격근무가 가능한 노동자(The Remotes) 35%, 둘째, 반드시 나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는 의사, 간호사, 소방관, 약사, 경찰 등 30%의 필수적 일을 해내는 노동자(The Essentials), 셋째, 3개월 생활비를 충당할 비상금도 없는 실직자, 어떻게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수입이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The Unpaid), 넷째, 교도소에 있거나 오갈 곳 없고 끼니를 염려하는 노숙자 등 잊혀진 노동자(The Forgotten)로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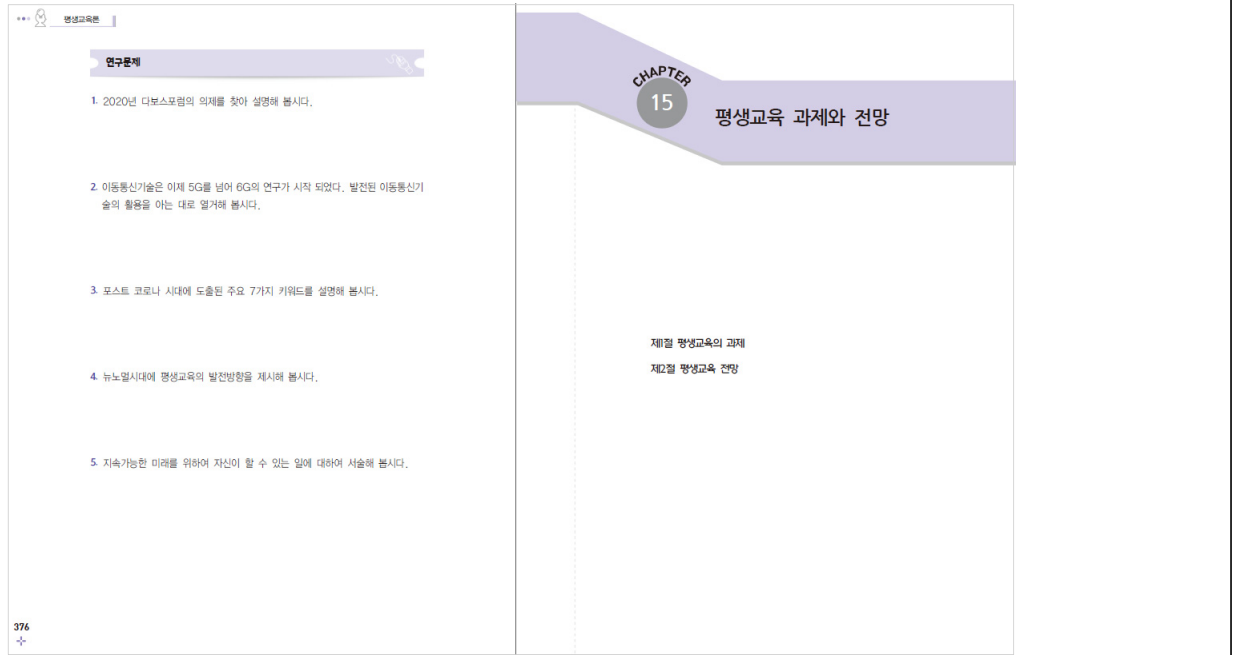
지금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인 질병, 빈곤, 교육, 난민 등의 문제와 지구 환경 문제인 에너지, 기후변화, 환경오염,

물 등의 문제, 그리고 경제 사회 문제인 주거, 기술, 생산 소비 등등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지구 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때이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제국주의, 자본주의, 인종차별 등을 발현시킨 반생태학적 본성의 역사를 뒤로하고, 인간이 지닌 또 다른 한 면인 생태환경을 보존하려는 생태학적 본성을 찾아가야 한다.

최근 경제 분야에서는 ESG경영이라 불리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중심을 둔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 방식이 주목되고 있다. 환경은 탄소배출 감소,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폐기물 관리, 자원의 효율성을 포함한 친환경으로 기후 위기에 처한 지구 생태계의 환경개선을, 사회는 인권 및 노동 조건 개선과 다양성의 포용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가치 창출을, 그리고 기업의 경영 구조 투명성과 윤리적 경영을 강조한다.

**376쪽** (문제 1~4까지 수정)

현재



4쇄 예정

1. 2024년 다보스포럼의 주제와 세부 주제를 찾아 설명하십시오.
2. 이동통신기술은 이제 6G의 시대를 열고 있다. 발전된 이동통신기술의 활용을 아는 대로 열거해 보십시오.
3. 기업의 지속가능하고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ESG경영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4. 고령화 사회에서의 평생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십시오.
5.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서술하십시오.